지역 메아리

정읍시 작은도서관, 내달까지 풍성한 여름 독서 행사 운영

정읍시가 마을공동체의 거점인 작은도서관을 홍보하고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까지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내장산 실버타운 내에 있는 실버 작은도서관에서 오는 6일 그림책 '상추씨'의 저자 조혜란 작가의 1인 빛그림자극과 9일 어른을 위한 골목 콘서트가 열린다.

이어 오는 31일 책향기 작은도서관에서 '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의 저자 유승하 작가의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책향기 작은도서관에서는 내달 31일 정읍지역 14개 작은도서관이 연합해 추진하고 있는 2인 1조 100권 읽기 프로젝트, '북리더 원정대 책 잔치'가 펼쳐진다. 행사에서는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의 저자 고대영 작가와 '내 어머니의 이야기'의 저자 김은성 작가의 강연이 마련돼 있다. 또 책 잔치에 참여한 어린이를 위해 '우리 동네 딱지치기 왕'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의 특색에 맞는 독서 행사를 운영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작은 도서관이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를 읽고 사람을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상동 작은도서관에서는 무지개 물고기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6월에는 수성 작은도서관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수목토 작은도서관에서 마술과 빛 그림자 공연이 열렸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밝은 직장문화 조성 4대 폭력 예방 교육 가져

정읍시가 3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민수진 강사는 미투 운동의 발생 배경과 의미, 양성평등과 성인지 능력의 필요성, 조직 내 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4대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인권의식 강화를 통한 4대 폭력 근절의 비전 등을 제시해 교육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유진섭 시장은 "공직자들이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4대 폭력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문제 발생 시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와 사이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 지역에 양성평등 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주인은 바로 우리!

정읍시, 환경 · 교통 등 각종 사회문제 해소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나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실현을 위한 정읍시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2년 차를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한 정읍 실현의 토대가 될 핵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과 교통 등 각종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범시민 운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가능한 정읍 발전의 토대가 될 핵심 현안 사업 추진 못지않게 지역 내 부정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시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함께 실천하여 바꾸는 문화'를 만들어 '사랑과 사람의 도시, 사람 중심 행복 도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시는 우선적인 문제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선진교통문화 정착, 자살 위험 없는 정읍 만들기 등을 꼽았다. 시에 따르면 1일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2017년 기준 58여 톤에서 2108년 기준 62여 톤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달 평균 577건(2019.1.~2019.5.)에 달하고 지난해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36.2 명으로 전국 평균 24.3명보다 높다.

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기반 SOC가 확충되어도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시민 행복은 있을 수 없고 지속가능한 정읍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없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 지키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와 불법 주정차와 무단횡단·음주운전 하지 않기 등을 꼽았다.

특히 높은 자살률과 관련, 단순한 보건문제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빈곤, 고독감, 우울 등 복합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더불어 도·농 복합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6%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 자살 예방 전담인력 확보와 생명지킴이 양성 등 소중한 생명 지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가족과 친구 등 주변에 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작고 사소한 것들을 시민 개개인이 지키고 바꿔주면 내 아이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며 "정읍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고, 지금이 바로, 모두 함께 나설 때"라며 시민 모두의 동참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주민 약속사항 살펴

고창군은 군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단'을 꾸렸다고 3일 밝혔다.

평가단은 읍면 등에서 추천한 만 19세 이상 군민 15명과 공모를 통해 접수 받은 15명을 선발해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 위원이 14명으로 50%에 가까워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고창군의 의지를 드러냈다.

평가단은 민선 7기 유기상 고창군수의 임기종료까지 64개 공약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자문과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상황, 집행비율을 냉철히 평가한다.

앞서 유기상 군수는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비전으로 내걸고, ▲농생명 식품산업 살리기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 ▲나눔과 봉사로 촘촘한 복지 ▲함께 살리고 잘사는 상생경제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 등 6개 분야 64개 공약사업을 마련했다.

유기상 군수는 "농생명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공약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평가단의 정확한 판단으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평가단이 제시하는 의견들은 적극 반영해 공약사업이 내실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약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이행해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무더위 이겨내요"

고창군, 풍천장어 알리기 총력

해양수산부가 이달의 수산물로 장어와 전복을 선정한 가운데, 원기회복의 대명사 고창풍천장어가 주목받고 있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7월 이달의 수산물'로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장어와 전복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장어는 여름 더위의 특효약으로 여겨질 정도로 원기회복에 좋은 식품이니, 많이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어는 민물장어, 바다장어, 꼼장어, 갯장어 등으로 나뉘는데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이 담백하며 영양가가 높다.

특히 고창군 선운사 앞 인천강 유역에서 자라는 풍천장어는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좋아 최상품으로 친다. 원기회복 식품인 장어는 체내 독소를 배출해 피부미용에 도움을 주며, 칼슘과 인, 철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허약체질 개선이나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외에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레시틴도 많아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

앞서 지난 4월 일본여행업협회(JATA) 소속 여행사 상품기획 담당자 100여명이 직접 선정한 '한국미식(美食) 30선'에 '고창풍천장어'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고창군은 오는 12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이나 하계 전지훈련 선수단을 대상으로 고창풍천장어 알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은 풍천장어뿐 아니라 복분자와 수박, 멜론 등의 신선한 식재료가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식도시다"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 많은 방문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도약, 힘 보탤 터"

임민영 신임 정읍시 부시장 취임

임민영 정읍시 부시장(전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

임 부시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를 생략하고 간부공무원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임 부시장은 "민선7기 2년 차를 맞는 정읍이 본격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진섭 시장님의 소통행정과 현장 중심의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정읍,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정읍을 만들겠다"면서 "신성장동력 구축과 미래 먹거리 발굴, 일자리 창출에 모든 힘을 쏟아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며 힘찬 각오를 밝혔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듣는 임 부시장은 전주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화경제국장, 덕진구청장,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과장을 역임했다.

2017년 1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2018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을 역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이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와 3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카우트 육성 지원에 '한마음'

부안군 - 농어촌공 부안지사,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와 3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정문 부안지사장 등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지은행 홍보 등 사업 추진시 잼버리 홍보 병행, 견학 프로그램 등 스카우트 훈육활동 지원, 잼버리 홍보물 설치를 위한 장소 지원, 부안군의 잼버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그밖의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기관간 적극 협조 등에 협력키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긴밀한 상호 협조관계를 구축해 부안 스카우트 육성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잼버리 홍보에 박차를 가해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의 마중물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발 벗고 나서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러한 자발적 참여가 모여서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이끄는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군민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북돋아 함께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부안지사장은 "부안이 세계잼버리 개최지인 만큼 평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잼버리 홍보와 스카우트 지원뿐만 아니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안=김석진 기자